

“고객 가치 최우선 삼아 1등 넘어 일류 신한으로”

신한금융 창립 18주년 기념식

조용병 회장 “우수 벤처·중소에 ‘혁신금융’ 성장 사다리 놓을 것”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이 일등을 넘어 일류를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해외 금리파생상품 손실 등을 예로 들면서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그룹 창립 18주년 기념식을 갖고 “최근 금융권의 해외 금리파생상품 손실 논란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타까운 보이스포싱 피해 사례를 접했다”며 “고객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는 일류 신함을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그는 “일류 신한은 스스로의 기준이 아니라 고객의 신뢰와 인정을 통해 결정된다”며 “생명보험의 원 라이프(One Life)·뉴 라이프(New Life)와 그룹 부동산 협의체 등 현재 추진하는 모든 비즈니스에 고객에게 더 좋은 상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함의 정성을 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고객 가치와 직결되는 고객 자산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그룹의 핵심 평가기준으로 삼고, 수익을 얻지 못한 퇴직연금 고객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층 정교화된 보이스포싱 방지 시스템(FDS) 같이 고객이 생각치 못한 잠재적 위험까지 예방해 신함이면 안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는 방침이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

금융의 사회적 역할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일류 신한이 되기 위해선 시대가 요구하는 금융의 역할을 먼저 고민하고 남보다 한 발 앞서 실천해야 한다”며 “우수 기술력을 가진 벤처, 중소, 퓨처스랩(Future's Lab) 기업들이 창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신한이 혁신금융이라는 ‘성장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위기가정, 저신용자 등 소외계층이 언제나 기댈 수 있고 경력단절 여성, 청년들이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의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며 “저탄소 경제 전환, 신재생에너지 확산, 범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귀 기울여 모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리딩 금융그룹의 책임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5년간 혁신기업에 63조 마중물”

KB혁신금융협의회 혁신금융 점검

하반기 기술금융 여신지원 확대 소상공인 컨설팅으로 경쟁력 강화

윤종규 회장 “산업경쟁력 강화위해 리딩금융그룹으로서 역할 다할 것”

KB금융그룹이 오는 2023년까지 향후 5년 동안 혁신기업에 63조원 규모의 여신 지원에 나선다.

KB금융그룹은 지난달 30일 ‘KB혁신금융협의회 회의’를 열고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혁신금융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협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리딩금융그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전통적인 여신지원 체계에 더해 적극적인 투자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개발·공급해 혁신기업에 씨를 뿌리고 물을 줘서 싹을 틔워 주고 키워주는 역할을 담당하자”고 강조했다.

KB혁신금융협의회는 윤 회장을 의장으로 허인 국민은행장과 KB증권, KB인베스트먼트 등 혁신기업 지원과 관련된 계열사 사장 및 임원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혁신금융 추진과 관련된 그룹차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총 62조6000억원을 지원하는 ‘혁신기업 여신지원 강화’ ▲금융권 최대 규모로 3조6000억원을 투자하는 ‘혁신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KB금융

성장 투자 확대’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육성 및 금융연계 플랫폼 혁신이라는 4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현황 점검과 향후 지원방안 등을 협의했다.

혁신기업 여신지원 강화 부문 중 기술금융 여신지원에 있어서는 7월 말까지 6조4000억원을, 동산담보대출은 약 330억원을 지원했다.

다양한 특화 신상품도 출시했다. 지식재산(IP) 담보대출 전용상품인 ‘KB 더드림 IP 담보대출’과 ‘KB 플러스(P Plus) IP담보대출’을 출시했으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국산화의 중요성이 대두된 소재·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8%포인트의 금리우대가 가능한 ‘KB소재·부품기업 우대대출’도 내놨다. 제도적 개선 노력도 병행해 신기술·신사업 분야에 특화된 심사를 위해 혁신산업 전담 심사역과 혁신산업 심사협의체를 새로 만들었다.

하반기에는 기술금융 여신지원 확대

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IP 담보대출은 올해 말까지 1500억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혁신성장 투자 확대는 KB인베스트먼트와 KB증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KB인베스트먼트는 올해 ‘KB글로벌 플랫폼펀드(2200억원)’와 ‘KB문화 디지털콘텐츠해외진출 투자조합(400억원)’ 등 총 2750억원의 펀드조성을 완료했다. KB증권은 ‘KB 나우 스펙셜시추에이션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2500억원)’, ‘KB Sprott 신재생 1호 PEF(650억원) 등 총 3650억원 규모의 펀드조성을 마무리했다.

하반기에는 이들 펀드와 조성예정인 펀드를 활용해 지속적인 혁신기업 발굴과 투자에 적극 나설 예정이며, 정책 금융 등과 연계한 투자 활성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과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다. 실질적인 컨설팅 제공을 통한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KB소호컨설팅센터는 올해 2곳을 신설해 전국 총 12개소를 운영 중이다. 7월 말까지 지원한 컨설팅은 900여건이다.

창업지원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취업박람회(KB굿잡)는 2018년부터 기존 연 2회에서 5회로 확대했다.

하반기에도 기존 창업아카데미와 소호 멘토링 스쿨을 계속 실시해 나가는 가운데 1일 과정 교육 프로그램인 ‘원데이 클래스(One Day Class)’를 추가 신설해 더 많은 수의 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기보-우리銀, 소재·부품산업 금융지원 MOU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우리은행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어려움을 겪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을 돕기 위해 우대보증을 도입한다. 기보와 우리은행은 2일 서울시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소재·부품산업 혁신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영춘 기술보증기금 이사(왼쪽), 신명혁 우리은행 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하나금융, 국내 첫 泰 모바일 결제서비스

현지 시암상업은행과 제휴 환전이나 별도 앱 없이 결제

KEB하나은행이 국내 최초로 태국에서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로써 앞으로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은 환전이나 현지의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도 편리한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

하나금융그룹의 글로벌결제 네트워크 플랫폼인 GLN(Global Loyalty Network)의 지난 4월 대만 서비스 개시 이후 두 번째로, 태국 최대 은행 중 하나인 시암상업은행(Siam Commerci

al Bank, SCB)과의 제휴를 통해 파일럿 서비스를 거쳐 지난 1일 정식 출시했다. GLN은 대만, 태국에 이어 향후 아시아 주요국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준성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2일 “이번 GLN 서비스 태국 출시를 계기로 태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자국에서 처럼 편리하게 온·오프라인 해외 모바일결제·송금·ATM 인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현지인이 받는 다양한 쿠폰 및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은행권, 추석연휴 이동점포 14곳 운영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등 배치 송금·환전 위한 34개 탄력점포도

추석 명절 기간동안 은행들이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명절기간 은행 영업점이 문을 닫아 금융업무가 보기 어려운 고객들은 휴게소 기차역 등에 위치한 이동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은행연합회는 2일 추석 연휴기간 중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경남 등 9개 은행이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등에서 14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은행업무용 특수차량인 이동점포에선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입출금 거래부터 신권 교환 등이 가능하다. 운



우리은행 농협 이동점포 /각사

영기간은 1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6시까지 은행별로 상이하다.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는 송금, 환전 등을 할 수 있는 탄력점포가 운영된다. 신한·우리·SC제일·KE

B하나·기업·국민·수협·대구·부산·제주 등 10개 은행은 전국 34곳에서 탄력점포를 연다. 은행에 따라 계좌나 체크카드 신규, 제신고·변경 업무 등도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 yul115@

부산銀-英 엑센트리 핀테크 블록체인 스타트업 발굴·육성 맞손

BNK부산은행이 지난 달 30일 영국 런던금융특구에서 엑센트리(Xntree)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지역 핀테크·블록체인·스마트시티 분야의 유니콘 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엑센트리는 스마트시티 클러스터인 영국 레벨39 소속으로 블록체인, 핀테크,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분야의 유망 신생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투자기업이다.

부산은행은 지역 내에 유니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점을 마련해 엑센트리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활용해 유니콘 기업을 선발·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